

“군민 삶 더 가까이”...장성 ‘휴먼행동단’이 났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질 향상·지역 활력 제고 전입신고·재산권 보호·치매예방 등 건강한 삶 지원

장성군이 군민의 삶에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을 중심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휴먼행동단’은 ‘휴(休), 군민이 편안한 장성’, ‘먼저 찾아가는 행정’, ‘주민 감동 프로젝트 추진단’의 줄임말이다. 공직자, 기관, 자원봉사자, 전문가 567명이 ‘휴먼행동단’에 소속돼 있으며, 기존 찾아가는 사업을 총망라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진원면 선적리 덕천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열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 주민의 민원 접수를 도

왔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신문고에 등재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육군 최대 군사학교 상무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도 운영 중이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상무대 교육생은 업무시간 내 신고가 어려워, 전입신고팀이 접수를 돕고 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도 지원한다. 장



장성군이 군민 삶에 찾아가는 ‘휴먼행동단’을 통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장성 아은경로당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치매인지강화교실’ 모습. <장성군 제공>

성군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있다. 이달 중 이문마을회관(15-16일), 생동

경로당(17-18일), 선촌마을회관(22-23일), 신평·거마마을회관(24-25일)에서 <장성군 제공>

순천 자활근로사업 ‘순풍’...전년비 매출 33% ‘쑥’

19개 사업단 운영·저소득층 140여명 근로 기회 제공

순천시 자활근로사업 매출이 전년대비 월평균 33% 대폭 상승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신규 자활근로사업으로 개소한 다화용기 세척사업과 세탁사업이 전년대비 월평균 매출 33%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자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자활의지를 고려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코워싱’ 다화용기 세척사업단은 예비군 훈련장을 추가 수요처로 발굴

해 다화용 도시락용기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원어울세탁’은 소방방화복에 이어 산단 작업복 전문세탁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상반기 중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시는 ▲주전부리(누룽지·부각 제조 판매) ▲더클린(정소·방역) ▲미테리(이탈리안 레스토랑) 등 총 1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40여명의 참여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 위탁 지원하고 있는 순천시지역 자활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에서 ‘등급 상승’,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추가 배



원어울세탁 전경. <순천시 제공>

정받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시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문의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749-3494) 또는 순천시지역자활센터(061-7

44-823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참여자에게 1인 40만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자활근로참여자들의 자립활동과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지원한다. /순천=정기기자

화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화 시설 개선·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기대

화순군은 14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화된 방지 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8천500만원으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년 5월3일)으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 대기 배출 시설 신·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3년 미만, 최근 5년 이내에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정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화순군 제공>

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화순군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304)로 문의할 수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여수 거문마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근현대사 생활상 보유 가치 높아

여수의 대표 섬 거문도의 ‘거문마을’ 일원이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 예고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삼산면 거문리 35의 107필지(2만6천610㎡)로, 거문도 사건 등 여수지역 해양 도시 근대생활상을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또한 영국군이 머물렀던 거문도 내

향, 근·현대기 상가주택, 영국군이 개발한 큰 섬, 근대 의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옛 삼산면 의사당 등 당시의 마을 평면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역사·문화·생활·건축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거문도 사건 당시 거문도에서 중국 상해까지 연결한 통신케이블인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과 1900년 준공돼 현재 삼산면 의회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여수 거문도 옛 삼산면 의사당’은 초창기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록예고된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2022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 사업에 전국 유일 선정, 문화재 등록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으며 최종 등록 후 문화재 보수정비, 교육·전시·체험 공간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김선기기자

“유자골 고흥한우 맛보러 오세요”

고흥군이 육질과 풍미가 가득한 ‘유자골 고흥한우’를 맛 볼 수 있는 ‘미식 여행지 고흥’으로 초대한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유자골 고흥한우는 2022년 축산물품질평가원 판정 도체등급 1++ 이상 34%로 전남도 내 1위, 지난해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우량한우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할 만큼 최고급 소고기다.

유자골 고흥한우의 맛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숯불’이며 숯불, 프라이팬, 돌판에 구운 고기를 비교했을 때, 숯불에서 구운 고기가 육질 감소량이 가장 적고 연했다.

숯불의 복사열과 원적외선은 고기 결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육질을 가두고 굵은 시간을 줄여 고기 내부가 표면과 함께 익도록 만들어 겉을 태우지 않고 고기의 풍부한 맛을 잃지 않도록 한다.

또한 숯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칼륨 성분은 고기에 함유된 지방산을 중화시켜 고기의 누린 맛을 없애고, 고기맛을 더하는 자연 조미료 역할을 한다.

유자골 고흥한우는 유자골 고흥한우 프라자(동강면 고흥로 479, 061-835-8292)와 분청마루(두원면 분청문화박물관길 77, 061-833-4332) 등에서 맛볼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분청마루에서 유자골 고흥한우 숯불구이로 입안의 행복을 맛봤다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들리는 여행코스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고흥=최병환기자

담양군, 상설시장 문 연다

오는 26일 기존 5일장 상설로 개장

담양군이 최근 담양시장 건물 준공과 함께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하는 담양시장(조감도)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담양농업관 2층에서 입점 상인 36명의 입점 계약을 진행하고 시장상인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했으며,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전문가 맞춤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입점 상인들도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분야별 특색있는 품목으로 내부 시설을 꾸미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담양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면적 6천213㎡ 규모로 지하 주차장

64면, 1층 판매장 43개, 2층 식당 7개, 3층 카페 1개 등을 갖추고 지난해 말 준공됐으며 오는 26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장 축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26일 오후 2시 담양시장 정문에서 진행된다.

아직 입점자가 정해지지 않은 잔여 점포는 1층 농산물판매점 2개와 공산품 판매점 13개, 2층 식당 1개로 입점 희망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이병노 군수는 “그동안 5일장으로 운영된 담양시장이 새롭게 상설시장으로 개장하게 됐다”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를 갖춘 담양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